

## 회복을 넘어 환아의 미래까지 간호한다



서울아산병원은 2000년 국내 최초로 소아중환자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

2023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고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생후 21개월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간호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우연히 찍힌 영상을 밤새 돌려보며 감동한 아이의 엄마가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서 사연이 뉴스에 보도되자 댓글들이 빼곡히 달렸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간호하는 모습에 놀라워했지만, 해당 간호사를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소아중환자실을 비롯해 어린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트 모양으로 콧줄을 붙여주거나 테이프 위에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죠. 성인 환자에 비

해 아이들을 간호할 때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지만 아이들이 주는 보람이 있거든요.” 장은지 간호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뻐서 저절로 행복해진다’며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는 보람을 정리한다.

### 갈 곳 잃은 아이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소아중환자실

장은지 간호사가 말한 보람과 달리 국내 소아중환자 치료와 간호에는 어려움이 많다. 2023년 현재, 전국적으로 소아중환자실이 13곳에 불과한 탓에 소아중환자 중 55%는 성인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성인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소아환자들의 생존 확률이 소아중환자실 환자들에 비해 1.6배나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간호사와 전문의를 비롯


한 전담 인력이 부족한 데다 연령대에 따른 의료기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탓에 소아중환자실의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는 2000년 국내 최초로 소아중환자실을 개설한 서울아산병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이유다. 14개 병상으로 시작해 2008년에는 25병상을 갖췄고 2013년에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소아중환자실을 외과계(Unit 1)와 내과계(Unit 2)로 나누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올해는 4개 병상을 추가해 29개 병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60여 명의 책임감도 남다르다. 최지연 간호사는 ‘아이들을 마주하는 매 순간 소아중환자를 간호하는 이유와 책임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잘 회복시켜서 가족의 품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은지 간호사 역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한 아이의 일화를 소개했다. “장기 입원 후 퇴원했던 아이가 간호사가 되어 찾아왔어요. 몇 년간 저희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간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미래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니 뿌듯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 감동과 사명으로 실천하는 일상의 간호

서울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을 찾는 환자는 매년 1천 명이 훌쩍 넘는다.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소아중환자실 환자의 스펙트럼은 상상 이상으로 넓기 때문이다. 신생아실에서 나오는 순간 소아로 분류되는 데다,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이어온 성인 환자 그리고 선천성 질환을 가진 노년 환자 등도 모두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다. 때문에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정상 지표들을 두루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같은 치료나 처치에 대해서도 환자의 나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출산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높은 소아중환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숙제기도 하다. 소아중환자실의 선배 간호사들은 보호

자의 마음에 더 공감하고 후배 간호사들이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소아환자를 주로 돌보며 느낀 감동과 보람 그리고 사명과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몇몇 미담 사례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모든 환자를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간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 최주연



소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



소아 환자의 초음파 화면을 확인하는 소아중환자실 의료진.